

고하 어록

- 독립운동은 조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_ 1919년 3·1운동 직후 피검됐을 때 검사 앞에서의 답변
-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선을 떠나서는 또한 조선을 잊어버리고서는 일각일초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_ 동아일보 1925년 8월 28일자에 발표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첫 문장
-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뒤에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은 없는 것이요. 더욱이 이 기회를 이용해 국내에 있는 인사만으로 불합리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오랫동안 국외에서 풍찬노숙하던 선배 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_ 1945년 8·15 직후 자신의 동지들에게 한 말
- 일본이 망하기는 꼭 망한다. 그런데 그들이 형세가 궁하게 되면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자치를 준다고 할 것이고 형세가 아주 궁하게 되어서 진퇴유곡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조선 사람에게 독립을 허여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치를 준다고 할 때에 나서지 아니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립을 준다고 하는 때에도 결코 나서서는 안 된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다. 망해 가는 놈의 손에서 정권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필경 허수아비 정권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민족반역자의 이름을 듣게 된다.
_ 일제 말기 동지들에게 자주 강조한 말로 여러 사람들의 회고록에 나와 있다.

후원계좌_ 하나은행 272-910011-42504 예금주_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손금 처리됩니다.)

2024년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특별학술회의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의 민족운동

3·1운동에서 건국운동까지



일시: 2024년 2월 19일 (월) 14:00 - 18:00

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안녕하십니까?

고하 송진우 선생의 서거 79주기가 되어옵니다. 고하 선생은 중앙학교 숙직실을 책원지(策源地)로 삼아 국내의 천도교, 기독교 및 불교를 아울러 3·1구국운동을 일으킨 주동자입니다. 가혹한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정부도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방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어 내도록 기초를 닦은 국내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여러 이념의 인물과 주의주장을 모두 포용하여 오늘날 민족통합의 경륜과 원형을 보여주신 정치지도자입니다.

고하가 가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진두지휘하셨던 3·1운동과 해방공간에서의 건국운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극심하게 국론이 분열된 정치현실에서 고하가 생전에 민족통합의 길로 나아가신 발자취가 오늘날 큰 울림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일
(재)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

진행: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전 MBC 부사장)

Reception

14:00 - 14:30

개회식

14:30 - 15:00

- 국민의례
- 개회사 김창식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전 교통부 장관)
- 기념촬영

제1부 세미나

15:00 - 16:50

좌장: 이경숙 (글로벌차세대한인지도자재단 이사장 / 전 숙명여대 총장)

제1주제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

발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고신대 석좌교수)

토론: 남희숙 (이화여대 초빙교수/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제2주제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

21세기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

발표: 박명림 (연세대 교수) | 토론: 강원택 (서울대 교수)

..... 휴식 16:50 - 17:00

제2부 세미나

17:00 - 18:00

좌장: 이경숙 (글로벌차세대한인지도자재단 이사장 / 전 숙명여대 총장)

제3주제

자유민주의 독립국가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

발표: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전 서울대 총장직무대리)

토론: 김명구 (YMCA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교수)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는 일제시대의 대표적 민족언론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하 선생의 존영을 담은 동판이 헌정되어 있습니다.